

홍명보 “군기반장 맡겠다”

‘영원한 카리스마’ 홍명보(37)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가 바다를 치고 있는 태극전사들의 사기와 정신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해결사로 나선다.

홍명보 코치는 7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베를린시-글라드바흐시(市) 슐로스 벤스베르크 호텔에서 2006 독일월드컵 최종 훈련캠프를 차린 뒤 정기동 썬카와 코치 및 이운재 주장과 함께 대표팀의 당면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팀 이원제 미디어담당관에 따르면 이날 홍 코치는 “최근 두 차례 평가전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팀에 침체된 분위기가 흐른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신력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극전사 사기 끌어올리기 ‘해결사’ 나서 “전술적인 부분보다 정신력 회복에 주력”

특히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은 만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선수를 지켜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치의 본래 역할보다 훈련 파트너에 주력해 온 홍 코치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큰형 같은 존재로 돌아와 4강 신화 재현을 위한 ‘군기반장’ 역할을 다시 한번 맡게 된 것.

홍 코치에게 새롭게 맡겨진 역할은 지난 2002년 태극전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팀 베이백의 조연과 이를 받아들이던 디 아도보카트 감독의 사전 조율에 따라 결정됐다.

베이백 코치에게도 홍 코치에 대한 강인한 기억은 지울 수 없다. 홍 코치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최종 수비수로서 소리백(3-back) 라인의 치밀한 조율은 물론 미드필더의 움직임까지 이끌어 주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과감한 공격가담에 의한 속 시원한 중거리포를 쏘아올려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후 아도보카트호가 출범한 뒤 조용히 선수들의 훈련을 도우면서 감독과 선수들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에만 충실했던 홍 코치는 마침내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태극전사들의 정신력 보강을 위한 ‘핵심 카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는 강한 카리스마로 23명의 태극전사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독일 도착을 계기로 새로운 자신감이 필요하다”며 “이운재 주장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아데바요르·쿠바자를 잡아라”

한국전 최전방 나설듯
토고 ‘베스트 11’ 운곽
4-4-2 포메이션 구축

한국의 독일 월드컵 첫 상대 토고 축구대표팀의 베스트11 운곽이 드러났다.

오토 피스터 토고 대표팀 감독은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FC방겐과 최종 평가전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발 출전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고는 이날 아데바요르와 모하메드 압델 카데르 쿠바자를 투톱에 세운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미드필더엔 왼쪽부터 세리프 투레 마방, 알렉시스 로마오, 쿠아미 아그보, 토마스 도세비를 세웠고, 포백 수비 라인엔 왼쪽부터 튀도비르 아세모야사, 다르 니블베, 장폴 아발로, 마사메소 창가이가 포진했다. 골문은 변함없이 주전 썬카피 코시 아가사가 지켰다.

공격형 미드필더 야오 세나야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야오 아지아워누 대신 각각 도세비와 아그보가 출전한 것을 제외하곤 지난 3일 치른 리히텐슈타인과 평가전 때와 같은 선발 라인업이다.

이날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된 세나야는 도세비와 선발 출전을 다룰 전망이다. 도세비는 키 능력이 좋아 코너킥 등을 전담하고 있고, 세나야는 멀티 플레이어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도 지역예선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아그보보다는 11경기나 뛰 아지아워누가 주력 부대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아데바요르가 떠오르기 이전 토고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였던 아데칸비 울루파데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후반 조커 요원으로 출격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방겐의 알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고와 현지 아마추어팀 FC방겐과 마지막 평가전에서 토고의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위)가 수비수와 볼을 다루고 있다. /AFP=연합뉴스



앙리·시세 투톱 나선다

프랑스 베스트 11 확정

한국과 독일월드컵 본선 G조에 함께 속한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베스트 11’이 운곽을 드러냈다.

프랑스는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생테티엔에서 열린 중국과 마지막 평가전에 간판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아스날·왼쪽)의 투톱 파트너로 지브릴 시세(리버풀·오른쪽)를 출격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레몽 도메네크 감독은 앙리의 파트너로 다비드 트레제게(유벤투스), 루이 사아(뎀유), 실뱅 윌도르(리옹) 대신 시세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조합은 상대 팀 공세를 전방에서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등 전략적 선택이 다양하다. 하지만 호흡을 더 맞출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앙리를 아예 원톱으로 내세우고 좌우에 약간 처진 윌포워드 두 명을 배치하는 4-5-1 포메이션도 고민을 했지만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하는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의 능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4-4-2 시스템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드필더에는 지난날 28일 멕시코와 평가전, 지난 1일 덴마크와 평가전 때와 마찬가지로 지단을 비롯해 플로랑 말루다(리옹), 파트리크 비에라(유벤투스), 클로드 마켈렐레(첼시)가 나선다.

포백(4-back) 수비진도 왼쪽부터 에릭 아비달(리옹)-윌리엄 갈라스(첼시)-필리앙 튀랑(유벤투스)-윌리 사블(바이에른 뮌헨) 등 주전이 선발로 출격하며, 파비앵 바르테즈(마르세유)가 변함없이 골문을 지킨다.

“스위스 뛰어난 선수 없다”

차두리 스위스 신문과 인터뷰

아버지 차범근 프로축구 수원 삼성 감독과 함께 MB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차두리(26·FSV 마인츠05)는 “스위스 대표팀에는 뛰어난 선수가 없다”고 말했다.

7일 매일 100만 부를 발행하는 스위스 최대 무가지 ‘20미누텐’에 따르면 차두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스위스 대표팀에는 뛰어난 선수는 없지만 선수들 모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 일을 실행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위스는 위명업이 돼 있으면서 안전한 기량을 갖춘 팀”이라며 “월드컵 출전 자격을 두고 다투는 유럽 지역예선에서 스위스는 이미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스타들 부상 희비 엇갈려

독 발라크 부상...영 루니 회복

독일월드컵축구에 출전하는 스타들의 부상으로 각국 대표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차군단’ 독일 대표팀 주장 미하엘 발라크(첼시)는 종아

리 부상으로 훈련에 또 불참하면서 10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조별리그 첫 경기인 코스타리카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반면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날 팀 훈련에 참가, 조별리그 출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7일 AP통신은 전했다.

독일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발라크는 알마하 휴식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중요인 근육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상 정도가 날마다 호전되고 있

다. 개막전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반면 오른발 골절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공격수 루니는 6일 대표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루니의 훈련을 지켜본 스벤 에라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은 “매우 좋아 보인다”면서도 “나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왜 D-1 인가?

2006 독일월드컵 D-데이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현지시각 6월9일 오후 6

시(한국시각 10일 오전 1시)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기준으로 D-데이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오늘은 D-1입니다.